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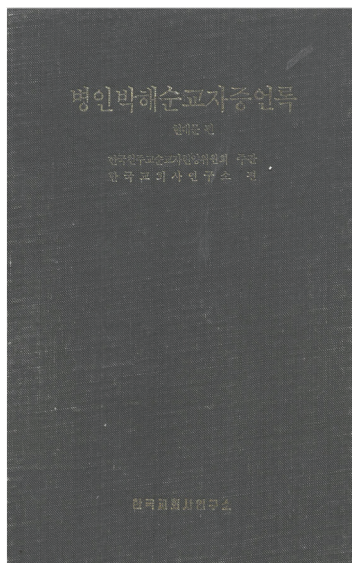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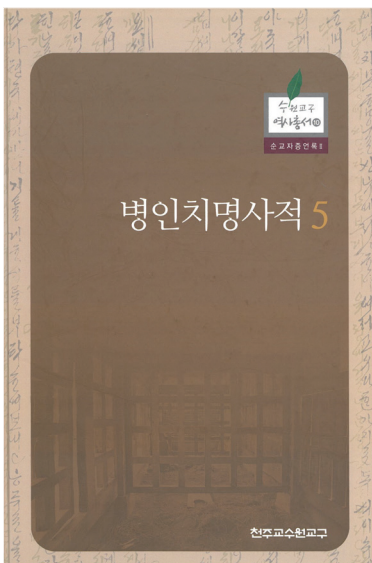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김기호 회장, 교회사 기록에 나오는 김형옥 회장과 동일 인물 (2)

- 김기호 요한 회장 관련 자료와 김형옥 요한 회장 관련 자료의 비교 -

필자는 김기호 요한 회장에 대한 자료를 재검토함으로써 이전까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선교사제들의 서한과 신자들의 증언 기록에서 나오는 ‘김형옥 요한 회장’의 이름[자(字)]과 가족 관계, 행적 등이 김기호 회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형옥 회장과 김기호 회장이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또한, 김기호=김형옥 회장이 1860년대와 1870년대 후반~1890년대 초까지 수행했던 교회 활동[전교와 교육, 선교사제 수행과 보좌, 교리서 저술, 순교자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기호 회장 관련 핵심 자료에는 회장의 자서전[『봉교자술(奉敎自述)』(1901)], 후손들의 가전 자료[『신앙인의 유산 - 4대에 걸친 발자취』(김재환, 1979)], 족보 기록[『안동김씨대동보(安東金氏大同譜)』 전10권 중 제4권(1980)] 등이 있습니다. 한편, 김형옥 회장에 관한 교회측 자료는 회장 자신의 시복재판 증언이 수록된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교구재판, 김형옥의 이름과 행적이 언급되는 『병인치명사적』과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김형옥 회장을 복사 겸 총회장으로 삼았던 블랑 주교의 서한 등이 있습니다.



『병인치명사적』 판독역주본(2020년, 전6책)과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고문·색인편/현대문편(1987, 전2책)

지난 12월호에서는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형옥의 진술을 중심으로 김기호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김기호와 김형옥이 동일 인물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2024년 1월호에서는 신자들의 증언 기록인 『병인치명사적』과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에서 확인되는 ‘김형옥 요한’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순교성인 우세영 알렉시오를 입교시킨 김형옥 요한 - 황해도 서흥 회장

1900년 9월 19일 명동성당 지하소성당에서 열린 시복재판 127회차에 출석한 김형옥 요한은 병인 순교자들에 대해 진술했는데, 그 자신이 우세영 알렉시오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세영은 본래 황해도 서흥 백암 사람으로 글방[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는데, 당시 글방을 돌며 전교를 하던 김형옥이 그에게 교리를 알려주자 감동을 받아 입교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세영이 김형옥을 찾아와 어떤 교리에 대해 묻고 그 답을 듣자 날이 저물었는데도 바로 떠나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묻는 김형옥에게 ‘오다가 한 사람에게 교리를 가르쳤는데 지금 선생[김형옥 회장] 말을 들으니 내가 잘못 말했기에 즉시 가서 바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떠나라는 김형옥의 권유에도 우세영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바로 떠났다고 합니다.[『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9권 1804~1805쪽.]

김형옥과 관련된 우세영의 입교 과정과 일화는 『병인치명사적』과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에서도 확인됩니다. 『병인치명사적』 7권 14~19쪽, 10권 11~13쪽, 24권 56~60쪽, 24권 135~138쪽은 우세영 알렉시오에 대한 증언인데, 7권과 10권의 내용이 비슷하고, 24권의 두 증언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이 증언들 모두 우세영이 서흥 지역의 김 회장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고 나옵니다.[24권에는 ‘김 요한 회장’이라고 함]

우세영이 어떤 사람에게 교리를 잘못 가르친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간 일화는 24권에 나오는데, 교리를 잘못 가르쳐준 사람의 집이 ‘산 너머 10여 리 되는 지방’에 있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병인치명사적』 16, 21~22, 24권의 원본 문서를 수합·정리한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에도 위의 24권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56~60쪽 내용은 정리번호 177, 135~138쪽 내용은 정리번호 196에 나옴]

위의 『병인치명사적』 증언들에는 그 내용을 진술한 증언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4권 56~60쪽의 내용이 수록된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정리번호 177에는 증언자가 ‘주교 복사 김형옥 (Déposition de Kim Hyeng-ok, serviant de Mgr.)’으로 나옵니다.[고문·색인편 173쪽, 현대문편 3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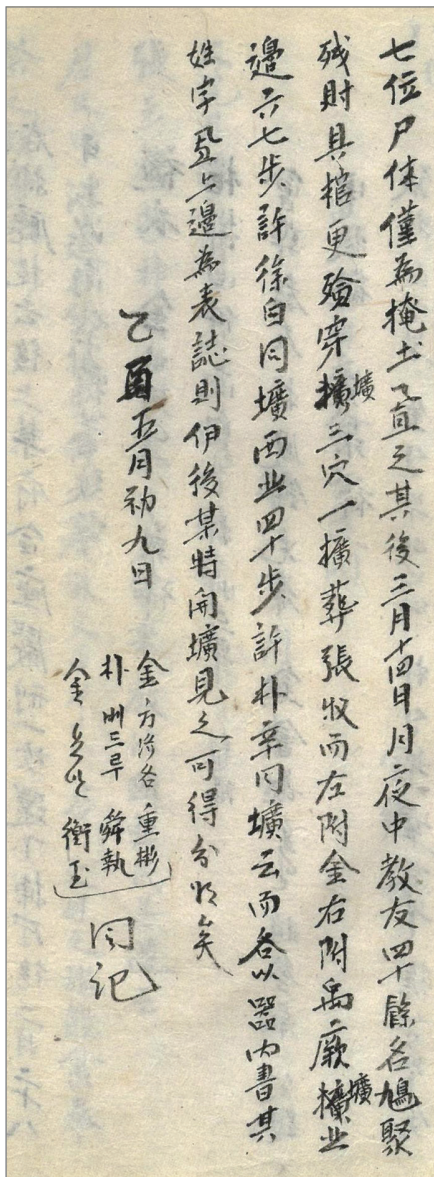
이 증언 원문에는 증언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프랑스로 증언자 이름을 메모해 놓은 것입니다. 이후 『병인치명사적』 필사자가 원문 문서를 필사할 때 프랑스어 메모 부분을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모에서 주교는 김형옥 회장이 수행했던 ‘블랑 주교’(1844~1890)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김형옥 회장이 우세영 알렉시오에 대해 시복재판 외에도 증언을 따로 했으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진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인치명사적』 24권 60쪽과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정리번호 177 끝부분에 증언 일자가 나오는데, 일자 다음에 ‘관슈(관수) 기(기)’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관수는 盥手(제례 때에 손을 씻고 경건한 자세를 갖추), 기는 記로 추정됩니다. ‘관수 기’를 ‘삼가 기록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다른

교회 측 자료에서는 거의 확인이 안됩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표현이 ‘김기호 회장’의 『봉교자술』에 나옵니다.

지난 12월호에서 김기호 회장이 파리외방전교회의 상해 대표부인 삼덕당(三德堂)을 방문하고 크게 감격하여 ‘삼덕당기(三德堂記)’를 따로 지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삼덕당기’의 마지막에 ‘朝鮮 明道會 後學 金若翰 盥手謹誌(조선 명도회 후학 김 요안은 삼가 기록하노라)’<sup>[한문본 16a, 한글본 25a]</sup>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盥手謹誌’와 『병인치명사적』,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의 ‘관수 기’가 사실상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보아도 ‘김기호’가 김형옥과 동일 인물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베르뇌 주교 등 새남터 순교자의 유해 수습 과정을 기록하다 - 김 요한 형옥(衡玉)



『병인치명사적』 73~74쪽<sup>[『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정리번호 184]</sup>에는 베르뇌 주교를 비롯하여 1866년 새남터에서 참수 치명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이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왼쪽의 사진처럼 한문으로 기록되었고, 을유년(1885) 5월 9일(양력 6월 21일)에 세 명의 신자, 김중빈(金重彬) 프란치스코, 박순집(朴舜執) 베드로, 김형옥(金衡玉) 요한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글의 체제와 작성 연도로 보았을 때, 당시 조선대목주장 블랑 주교의 지시에 따라 공식 보고서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박순집 베드로는 베르뇌 주교 등의 유해를 이장할 때 신자들을 이끌고 일을 관장했던 사람으로 위 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박순집의 진술에 의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빈이 유해 이장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김형옥은 1866년 당시 황해도 서흥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해 이장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시복재판에서 베르뇌 주교 등이 묻힌 왜고개 무덤을 나중에 방문했다는 진술은 확인됩니다.<sup>[『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9권 1810~1811쪽.]</sup>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과 다른 『병인치명사적』 기록에는 김형옥의 한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위 보고서에는 형옥(衡玉)이라는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병인치명사적』 24권 74쪽 일부  
[출처] 『병인치명사적』(영인본, 한국교회사연구소, 2020, 16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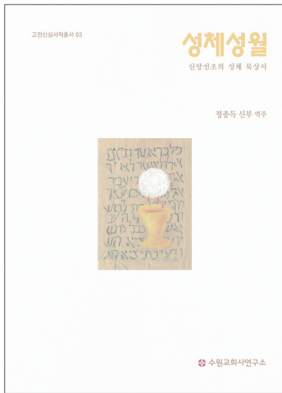
지난 12월호에서 소개했듯이 족보기록인 『안동김씨대동보』에는 김기호의 자(字)가 형옥(亨玉)으로 나옵니다. ‘형’의 한자가 서로 다르지만, 음이 같은 한자 이름이 혼용되는 경우가 종종 기록에서 보이기 때문에 김기호=김형옥(金亨玉)이 김형옥(金衡玉)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 『성체성월』(고전신심서적총서 03) 간행 (2023.12.25.)



신앙선조들의 성체 묵상서

- ‘영성체 준비’, ‘성체강복’, ‘성체묵상’을 하기 위한 최고의 책
- ‘1890년’ 유일 필사본을 현대어로 풀고 주석을 붙여  
우리시대의 천주교인을 위한 묵상서로 새롭게 펴냈습니다.

정종득 바오로 신부 (수원교회사연구소장) 역주  
역주본 및 영인본·판독본·현대표기본 수록,  
409쪽, 25,000원

###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4호 원고 모집

- 투고 마감일 : 2024년 1월 31일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 심사를 거치는 정규 학술논문 이외에 보고서, 서평, 자료 소개[해제], 번역문 등 교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글과 자료도 『교회사학』에 신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 ▣ 후원회원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23년에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원하시는 분과 우편, 팩스 등으로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기존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분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